

순천 '외국인 학교' 29일 기공식

신대배후단지에...2013년 3월 개교
캐나다 메이플립 교육재단서 운영

오는 2013년 순천시 해룡면 신대 배후단지에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연다. 순천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해룡면 신대배후단지 외국인학교 부지에서 박종영 전남도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 장민체 도교육감, 셔먼 젠 메이플립(Maple Leaf) 이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학교 기공식을 갖는다.

외국인 학교는 캐나다를 본부로 하는 '메이플립 교육재단'(이사장 셔먼 젠)이 운영하며, 부지 9만9000㎡에 오는 2013년 3월에 개교 예정이다.

수업 연한은 12년 72학급으로 2000명의 학생 수용이 가능하며 유치

원, 초등학교, 주니어 고등학교, 시니어 고등학교가 연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메이플립 교육재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제 고등학교 등 세계 각국에 24개의 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원어민 교사 250명을 포함해서 1300여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38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약 40% 이상이 세계 200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립' 교육 시스템은 캐나다 브리티ッシュ 콜롬비아주 교육청이 인증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브리티ッシュ 콜롬비아

전남 중북부 지역 화장장 신설 절실 윤시석 도의원 촉구

전남 중북부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비용과 장례절차 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윤시석(민주·장성) 전남도의회 의원은 24일 행정사무감사를 인용, '전남 중북부 지역에 화장장을 신설하거나 화장장 이용료를 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남지역 화장장은 목포와 여수, 순천, 광주 등 남부권에만 둘러 있어 중북부 지역 주민들은 광주 시립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10월 말 현재 광주 시립화장장 이용 6500 건 중 36%인 2400건을 전남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요금은 광주시민보다 6배나 비싸게 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남도가 이용료를 지원해 주거나 중북부 지역에 화장장을 새로 건립해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



여수엑스포 성공 기원...52일간 빛의 향연

다음달 9일 보성차밭 일원에 '2012 여수 세계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형트리가 불을 밝힌다.

보성군은 12월 9일 복제 일원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2012년 1월 29일 까지 52일간 '보성차밭 빛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차밭 대형트리와 테마거리, 은하수 터널, 복제~다향각 경관조명, '빛의 거리', '포토 존', '다짐의 계단', 소망카드 달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마련된다.

밀레니엄 트리로 지난 2000년 기네스북에 등록된 보성차밭 대형트리는

높이 120m·폭 130m의 규모로 차와 소리의 고장 보성을 널리 알리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군민의 열원을 담았다.

특히 120만 여개의 형형색색 은하수 전구와 LED 조명을 이용해 눈꽃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2012년 '옹의 해'를 맞아 은하수 전구와 LED 조명을 이용해 눈꽃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보성을 찾는 많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보성차밭 빛 축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은하수 터널' 주변 1만7000㎡에 이르는 차밭을 아름다운 오색 불빛으로 물들이고, '테마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 서있는 아름드리 참나무를 '소원의 나무'로 꾸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와 함께 연인과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포토 존'과 빛이 흐르는 '빛의 거리' 등 이색 체험거리와 소망카드 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보성을 찾는 많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보성차밭 빛 축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나주혁신도시 전문 솔로몬은

전문가의 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2609-5888

(주)대신종합건설 010-3153-4242

위치 : 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지내 전자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재지전체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 물(매매)

■ 토지(600평건물4,000평(매가 210억)
보증금10억/월세5,000만원

■ 토지99평 건물700평(매가110억/보증금40억/월세3,000만원

■ 토지200평 건물725평(매가 32억)
보증금6억/월세1,700만원

■ 토지164평 건물600평(매매
가30억)
보증금6억/월세1,700만원

■ 토지(매매,상무지구)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490m(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형기능:식당영업점
■ 833m(252평)-평당1,300만원
(상무지구)(변화기사리리코너)

■ 1,980m(600평)-평당1,200만원
(상무지구)(유형기능)

■ 3,400m(약1,000평) 평당750만
원(시청앞)(회사사옥, 오피스텔
등 적합)

■ 동립동 (생산녹지 운암~하남
간대로변) 4,470m(약1,352평) -
평당330만원(예식장 적합)

및 출주문 받습니다.
임대사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풀이드려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월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령 1층

수완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코너점(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062)961-3377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경

설계·기획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1억에 5채

★1년간 임대수익보장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양도세 혜택

★향시 건축토지함

보물창고 010-2609-5888

(주)대신종합건설

010-3153-4242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나주혁신도시 전문 솔로몬은

전문가의 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2609-5888

(주)대신종합건설

010-3153-4242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진도 '토요민속 여행' 을 마지막 공연

내일 향토문화회관
을 1만5000명 관람

진도 군립 민속예술단은 26일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을 마지막 '토요민속여행' 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은 남도민요 따라 배우기 시작으로 단막극, 판소리, 진도 북놀이 등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개막한 '토요 민속여행'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총 34회에 걸쳐 1만 5000여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토요 민속여행'은 지난 1997년 시작한 이후 14년 동안 총 509회의 상설 공연을 매주 토요일에 열어 지금까지 모두 25만여명이 다녀갔다.

남도민속 문화의 보고인 진도 사람들의 삶과 어려움은 '토요 민속공연'은 남도 여행의 대표적



코스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소득증대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경기자 hypark@

한국바스프 어린이 화학